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발행인 김종기
편집인 정원상
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Tel. 053-603-3920
Fax. 053-603-3929 www.gbe.or.kr

자명종

- 교육활동 및 회의활동 2~3면
- 건강 기획연재 7면

- 행사 및 현장활동 4~5면
- 공무원 노총 및 지부 소식 6면
- 조합원 사랑방 8면



6급이하 조합원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

공감·소통의 장 마련… 교육현장 어려움 토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5년 7 월 29일 오전 11시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6급이하 지방공무원과 교육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대화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날 대화에는 교육감과 지방공무원 23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 경북교육 완성을 위한 교육행정인의 역할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을 듣고, 정책분야에 아이디어 제시, 지방공무원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영우 교육감은 “이번 지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교육행정의 부족한 점과 필

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한 많은 의견을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참석한 지방공무원에게 화답하였으며, 함께 자리한 김종기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권리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의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감과의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공무원들의 권리개선 사안들은 모두 법령과 제도로서 이루어진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고 하였다.



제19차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6월 12일 오후 4시에 제19차 상임집행위원회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김종기 위원장은 상임집행위원에게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하며, 메리스 확산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힘을 내어 전진하자고 당부 하였다.

이날 회의는 2015년 5월부터 6월 현재 까지 주요활동사항의 보고로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제12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행사 참석, 노사합동 청소년 복지시설 봉사활동, 제3회 교육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1차), 신청사 이전시기 관련 협의, 매일신문사 노조 홍보 관련 협

의, 조직 개편 관련 부교육감 및 국장 협의,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제8기 출범식 및 2015년도 총회 참석, 조직 개편 관련 교육감 협의, 교육부 신임 지방 교육자치과장 면담 등이다.

이어서 상급단체 회의 참석 결과 보고로 연금투쟁 성과 분석 및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공노총 대경연합회 협의회 참석, 교육청노조 제도개선위원회는 5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상정 및 검토하기로 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북교육노조 규약 개정에 관한 건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등으로 안건을 협의해서 제60차 정기상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조합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전체 회의(1차·2차) 실시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부터 The K 경주호텔에서 행정인력 적정 배치를 통하여 조합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1차 전체 회의를 가졌다.

이번 TF팀은 △장기적 교육 재정 악화에 대비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적 제고를 통한 조합원의 근무 여건 개선 △조합원이 만들어 가는 교육 행정 풍토 조성이라는 모토로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 동안 팀원을 모집하여 3개 분과로 구성을 하여 총 15명의 TF팀을 구성하였다.

TF팀의 각 분과별 주요 과업으로는 △1분과는 업무 분석에 기초한 단위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인력 재배치 방안을 모색하고 △2분과는 교육수요 변화와 장기 교육재정 전망에 기초한 전략적 단력적 인력 운용 방안 모색 △3분과는 불필요한 사업, 관행적 사업의 축소 폐지 및 업무 간소화를 통한 업무 경감 및 재정·시간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국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학교수 기준은 내리고, 대신 학생수 기준을 대폭 올리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 규칙을 개정하려고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우리 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상급단체와 연대를 통해 막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자체적인 대응 태세도 준비를 해야 하므로, 이번 TF팀의 임무가 막중하니, 좋은 그림을 그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첫 회의에서 TF팀은 △경상북도 학교 별 정원자료 △2015년 ~ 2019년 통·폐합 대상 학교 현황 및 학교 신설 계획 △소규모 학교 현황 및 기준 △학교별 통학 차량 운영 현황 △2016년 ~ 2020년 학생



수용 계획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 공무원 현원부 △교직원 업무 경감 방안,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본청 조직진단 보고서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날 요구한 자료는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취합 받아 TF팀에 전달되어 각 분과별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지난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TF팀 전체회의가 화랑교육원에서

개최되어, 그동안 분과별 토의 내용을 전 인원이 교류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2~3회 전체 회의를 거쳐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여 2015년 9월 15일에 경북교육청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리 신장 활동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제60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7월 21일 오전 11시부터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제60차 정기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입후보자의 선거 기탁금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위원장 선기 기탁금을 삭제하는 한편 기탁금 반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는 조합원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임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체상임위원 31명 중 27명이 참석하였다.



하반기 노동교육 실시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7월 21일 오후 1시에서 7월 22 오후 1시에 걸쳐 포항, 안동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합원 약 900명,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2013년 단체교섭에 의하여 올해 2번째로 시행되는 노동교육에는 노사

관계의 이해, 연금법 개정, 2015년 경북 교육노조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들의 노동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5년 2/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6월 18일 오후 3시에 경북교육노조 회의실에서 경북교육청과 2015년 2/4분기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감사과·학교지원과 소관 1개 안건, 기획조정관 소관 1개 안건, 총무과 소관 2개 안건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교육청측의 교섭 대표인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등하는 노사가 아닌 화합하는 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에 최선을 다겠다”고 하였다. 한편 노조측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위원은 개인적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4,000여명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것임을 알아주고, 전향적인 마음으로 협

의회에 임해 주길” 당부하였다.

2분기 노사협의회는 △1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중 감사제도 개선 및 학교 통학차량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추진 경과 △학교기본운영비의 적정 배분과 효율적 운용 △사무관 승진 심사 차별 시정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이날 협의회에 노조측에서는 김종기 위원장, 박홍기 수석부위원장, 조원정 안동지부장, 서종철 연대협력국장,김장훈 포항대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김동구 기획조정관, 김광곤 총무과장, 윤영태 학교지원과장, 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하였다.



대구·경북 공공기관노동조합 협의회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6월 26일 오후 5시에 경북교육청 본관 1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공공기관노동조합 협의회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이영우교육감과 협의의 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영우 교육감은 의원들에게 경북교육청을 방문하여 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대경공공노조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제4대 협의회장 선출 관한 건으로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이 협의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종기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로 대구경북 지역 17

개 공공기관 노조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발전을 위해 함께 하자고 하였다.

회의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경북 지역본부 김영택 회장, KBS노동조합 대구경북시도지부 민각지부장,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대구경북 이종호 본부장, 전국우정노동조합경북지방본부 류천우 위원장,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영호 위원장, 대구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윤조 위원장, 대구공무원노동조합 김도형 위원장, 농협중앙회경북본부 김용택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김은식 본부장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제13차 공노총 대구·경북연합 회의 개최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7월 2일 오후 5시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제13차 공노총 대구·경북연합 회의를 가졌다.

이날 상급단체 지역 방문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8월 중 지역 국회의원 면담, 공무원 연금개혁 후속조치(인사정책 개선 분야) 분야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공무원 급여체계 개선, 2016년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6급 근속승진 개

선, 기준인건비제 개선,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개정 등을 상급단체에 건의하였다. 류영록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관철시키겠다고 하였다.

회의 참석자는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구시청노조 김도형 위원장, 경북도청노조 도영호 위원장, 대구광역시교육청노조 김윤조 위원장, 대구광역시북구청노조 석현정 위원장,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관련 간담회 사전 홍보 실시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7월 9일 오전 9시에 대구과학교육원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관련 간담회 사전 홍보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조직업무담당자, 학교근무 교원 및 직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국회 유은혜 의원이 발의(12925)한 학교조직 설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이에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간담회 개최 전에 교육부 관계자에게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메시지 전달하였으며, 정대림 사무관, 곡강 초등학교 김장훈 행정실장이 경북교육노조의 추천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사전 홍보에는 김종기 위원장, 박홍기 수석부위원장, 이명구 부위원장, 최정연 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박달원 기획조정국장, 이제복 교육홍보국장, 서종철 연대협력국장이 참석하였다.



신청사 이전 시기 연기 건의



경북교육노조는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영호) 임원들과 함께 2015년 7월 29일 10시에 신청사 이전 시기 연기를 위해 김관용 도지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도청과 교육청의 조기이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 하였으며, 신청사로의 이전은 주택, 학교 등 최소한의 정주여건이 조성되는 2016년 2월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관용 도지사는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며 정주여건을 최대한 빨리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어 10시 30분에는 장대진 도의장을 면담하였으며,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되는 도청과 교육청 이전이 내년 2월로 모두의 박수와 축복 속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2,000여 공무원의 여망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11시에는 이영우 교육감을 방문하여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한 집행부의 조기이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전달하였다.

이영우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내년 2월에 이전하자는 노동조합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도청이 이전하면 함께 이전하겠다고 답하였다.



학교 행정실 법제화 및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관련 교육부 신임 지방교육자치과장 면담

경북교육노조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과 함께 2015년 6월 8일 오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를 방문해 노조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이날은 새로 부임한 나향욱 과장과의 상견례를 겸해 지방교육자치과 권영일 사무관, 정원숙 사무관(법제화 담당), 예병철 주무관(정원담당)이 배석한 가운데, 그간 교육청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행정실 법제화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건을 거듭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나향욱 과장은 행정실 법제화와 수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행정실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교총과 만날 예정이니 공노총 차원에서도 교총에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만일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서 교총과 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

의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노조는 또한 2015.4.14자 교육부 공문 “2015년 교육급여 제도 개편 준비 및 안내 요청”과 관련 오는 7월부터 기초 수급자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보장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는데 따른 인력지원대책 등 사전준비 및 안내에 대해서도 강력 요청했다. 특히 나향욱 과장에게 교육부 황우여 장관, 김재춘 차관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과 정원상 사무총장을 비롯해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과 김인석 사무총장, 충남이관우 위원장(공노총부위원장), 경남 진영민 사무총장(공노총부위원장), 부산 편경천 위원장, 대구 김윤조 위원장, 대전 이창주 위원장, 충북 김광소 위원장이 참석했다.



본청지부 조합원 현장의 소리 청취

경북교육노조는 2015년 7월 9일 오전 11시에 본청지부 조합원 간담회(본청지부 현장의 소리 청취)를 경북교육노조 회의실에서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조 임원 및 본청조합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종기 위원장은 “23개 시·군에는 지부노동교육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의 소리 청취의 시간을 가졌으나, 본청지부는 가까이 있는 이유로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 이제야 조합원 간담회를 가져 안타까운 마음이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다”라는 약속과 함께 인사말을 대신 하였다.

본청지부 건의사항으로 직원 인력동원을 자제하고 용역권장, 종전 기능직인

열관리직이 시설직으로 전환 후에도 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나지 않고 학교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교육지원청 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시설직은 내신을 내지 않았음에도 1년마다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발령나는 것 등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김종기 위원장은 건의사항을 노조 임원들과 협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청도지부 제5대 출범식 및 지방공무원 청렴교육· 노사관계 교육

일시: 2015년 7월 28일 14시

장소: 청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2015년 경주지부 조합원 현장체험연수

일시: 2015년 7월 28일 08시 30분 장소: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일대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숨(호흡)이란?

보통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즉 호흡(呼吸)하는 것은 외부의 공기를 몸속으로 유입시켜 에너지를 제공하고 몸에 해로운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여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력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기 속의 산소, 수소, 질소 등으로만 유지되는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천지간에 존재하는 형체도 없고 맛도 없고 잘 느낄 수 없는 본질적인 힘인 기(氣)라는 것이다. 이 기(氣)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통해서 혹은 곡식을 통해서 몸으로 유입되어 여러 가지 현묘한 작용을 일으켜 몸을 자양시키고 정화시켜 자생력과 면역성을 키운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먼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다.

숨(호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늘 숨(호흡)을 쉬고 살아가지만 그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숨(호흡)이 얼마나 중요할까? 인간이 음식을 굶으면 50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1주일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숨(호흡)을 쉬지 않으면 단 몇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호흡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을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를 호흡에 비유해보면 먼저 유아기때에는 대체적으로 호흡을 배꼽 밑으로 하는데 이를 태식호흡 혹은 석문(단전)호흡이라고 하고 유년기에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호흡의 중심이 점점 더 위로 올라와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목에서 숨을 헐떡거리다 머리끝 백회로의 상승을 가속화 시켜 어떤 면에서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건강과 생명력을 길게 유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호흡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자신의 호흡 관리는 바로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공(동작) 따라 하기 "하루 10분으로 스트레스를 확~날리자"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효과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심신의 안정

방법(그림 1): 바닥에 편히 누운다. 두눈은 감고, 양발은 어깨 넓이, 양팔은 45도 각도로 손바닥을 위로 한다. 코로 숨을 쉬면서, 의식은 배꼽아래 2cm 밑에 둔다. 한 동작에 2분간 한다.

방법(그림 2): 무릎을 꿇고 양손은 맞주 보면서 서혜부에 둔다. 턱은 안쪽으로 살짝 당기고, 두 눈은 감고 의식은 배꼽아래 2cm 밑에 둔다. 한 동작에 2분간 한다.

효과

고혈압

방법(그림 3): 오른발은 45도 방향으로 내딛고, 원발은 발끝이 정면을 향하게 하며 어깨 넓이 만큼 앞으로 내딛는다. 이때 앞으로 나가는 발과 뒷발의 뒤꿈치가 일직선상에 오도록 한 후, 뒷발에 체중이 실릴 수 있게 그대로 앉는다. 이때 엉덩이를 살짝 뒤로 하고 허리는 곧게 펴서 상체가 약간 앞으로 숙여지게 한다. 앞발은 가능한 한 엄지발가락만 지면에 달을 수 있도록 한다. 양손은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몸 옆으로 내려 뜨린다. 두 눈은 감고 의식은 배꼽아래 2cm 밑에 둔다. 한 동작에 2분간 한다.

효과

신장과 심장의 조화

방법(그림 4):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원발바닥을 오른 무릎에 댄다. 이 때 양팔은 편안히 힘을 빼고 팔짱을 낀다. 원쪽 무릎은 정면에서 45도 정도로 벌려주고 팔은 좌우 교대로 하는 한 어느 쪽이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들어 올리는 다리를 기준으로 남좌여우(男左女右: 남자는 원쪽다리, 여자는 오른쪽 다리 부터 한다) 눈은 뜨고 하되, 의식은 배꼽아래 2cm 밑에 둔다. 한 동작에 2분간 한다.

시 하나

글 둘

어머니 생각

예천교육지원청 · 권기일

삶의 아픈 일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
그 아픔 달래고 싶어 다시 찾은 고향
소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묵은 때 씻어 날리고...
뒷마당 감나무도 그대로이고
나를 잊지 않고 멀리서 젖어 대며
달려오는 친구도 나를 반기는데
그리운 어머니는 보이질 않는다.
서산에 넘어가는 붉은 저녁노을에
다시 한번 어머니 얼굴 떠올려 본다.
고향은 언제나 변함없는 어머니 품속
새카맣던 머리 백발 되고
그 곱던 얼굴에 세월의 무늬 새겨지고
거칠어진 어머니 손이 그리워진다.
나 이제 그 포근한 품속으로 돌아가야지



사십(四十)의 문턱에서

송원초등학교 · 신형원

오랜만에 친구와 점심을 같이 했다. 평일 날 점심을 같이 먹는 건 몇 년에 한 번쯤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원한 국물을 들이 키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다.

집사람이다. 울먹거리는 목소리, 단번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 할 수 있었다. 5년 동안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한 모양이다. 가슴이 철렁 거렸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한 달 전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했고 마침 새롭게 시작하는 직장에 면접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 잘 꾸며진 정원이며, 고풍스런 건물들, 화트인 전망 등 내가 꿈꾸던 그런 것이었다. 부푼 맘을 진정시키며, 하던 일을 인계 하고 집에서 기다리던 중 연락이 왔다. 무기한 연기 될 것 같다고… 얼마 후 텔레비전에 건축비리와 관련 방송이 나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설마하며 기다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갔고 또 통장도 비어 갔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지만 나이를 평계로 부담스러워 하였다.

‘어! 이게 아닌데’ 한순간에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았다. 시련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내가 그 짹이다. 지쳐갔고 힘들었다.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두 아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아빠가 집에 있으니 좋단다. 덕분에 큰애 입학 하는 것도 보고 2교시 마치고 하교 하는 것도 마중 나가고 나름 평생 느낄 수 없었던 아이들과의 시간은 참 소중하고 행복했다. 그것도 잠시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실업자라는 것을… 몇 개월 후 우리 부부는 낯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주위에서는 잘 되었다며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억세게 운 좋은 선택받은 사람임에 분명할 것이다.

허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지 못 했다면 서글퍼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젊은 시절 열정을 바쳐 일하던 직장에서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보장 받을 수 없는 미래와 싸워야 하는 중년의 현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듯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중주 세대로서의 거창함을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내 앞에 닥치고 보니 그 막막함이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누구의 도움도, 어떠한 안내자도 없는 긴 터널 속에서 나부대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똘망똘망한 두 눈으로 지켜보는 아이들과 따뜻하게 아무 말 없이 내편이 되어주는 아내가 없었더라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였을 것이다.

먼 훗날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꿈은 없고 생각만 많아지는 40대가 되어간다.

사진 속

다른 곳 찾기 응모방법

정답을 보내오신 조합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하실 때에는 A4용지에 아래 사진을 오려 붙여서 다른 6곳을 표시한 후 지역, 성명, 소속, 핸드폰 번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6시까지

▶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우편번호702-702)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팩스송부(Fax 053-603-3929)

* 당첨자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홈페이지(www.gbe.or.kr) 공지사항란에 알림



“ 행정인력의 적정 배치를 위한 노조 TF팀 3분과 회의 모습입니다.”



조합원
투고 안내

조합원 소식, 기행문, 시, 수필, 콩트, 만화 등 소재에 구별없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화랑이(아이디03ina) 또는 메일(03ina@gyo6.net)

문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사무처 (053-603-3920)